

## 보도해명자료

(‘13. 7. 16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‘정유업계 공장 설립 규제 해결 무산, 에쓰오일 10조  
원대 등 프로젝트 표류’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 
(‘13.7.16자 아시아경제 1면)

---

### 1. 보도내용

- ☐ 석유공사 울산지사 부지의 에쓰오일 온산 제2공장 부지 전환이 유류 저장시설 지중화 비용부담, 토지가격 협의 등 문제로 해결되지 못함
  - 정부는 에쓰오일측에 투자계획서 제출을 요청했을 뿐, 중재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음

###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

- ☐ 에쓰오일 신규 공장부지 확보 건의에 대해 현재 산업부 주관 사업 추진전담반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는 등 정상추진중임
  - 석유공사는 동 사업 추진을 위해 5.31일 재무적/법적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
  - 6.24일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을 공개한 후 현재 입찰 공고중에 있음
- ☐ 금년 중 용역 결과를 반영한 세부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에쓰오일 등 수요기업에게 부지를 매각할 예정이며
  - ‘14년 이후 저장탱크 지하화 공사 및 부지조성 공사를 추진할 계획

※ 자료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강경성 과 장(02-2110-4890)  
배성준 사무관(02-2110-5458)